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1

제11장 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2. 올림픽 관련사업과 재원조달

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경제부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적자 없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나 경제적으로는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이 과거의 통념이었으나,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올림픽 개최가 경제적으로 흑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로스앤젤레스대회에 비하여 많은 시설투자가 필요하였던 한국의 경우, 대다수 사람들이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한편, 올림픽 개최에 따른 흑자성 여부는 올림픽 관련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데 서울올림픽의 관련사업은 그 특성에 따라 대회직접사업과 여건조성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회직접사업은 대회운영사업 및 대회 개최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면서 대회 후 유휴화되지 않는 투자적 성격의 사업인 직접투자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회운영사업은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진행·관리·운영 등 경상업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회의 의전, 개·폐회식 행사, 경기진행, 선수촌운영, 문화·홍보, 대회운영과 관련한 통신부문과 부대시설 등 대회운영에 필수적인 인력 및 장비의 확보·운영·지원사업이 포함되었다.

대회운영사업은 주로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사업주체가 되며, 올림픽기금이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직접투자사업은 대회개최와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으로서 경기장의 건설, 경기장·연습장의 개·보수 및 관리 등과 같은 시설투자사업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국제방송센터 건립, 올림픽기념 상징조형물 등 문화·홍보부문의 사업들도 직접투자 사업에 포함되었다.

여건조성사업은 올림픽 개최 준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의 추진시기를 앞당겨 시행, 대회기간에 이들 시설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었다. 특히 여건조성사업은 올림픽대회의 개최여부에 관계없이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복지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사업의 주체가 되었다.

대회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원칙적으로 조직위가 부담하고 여건조성사업은 정부가 부담하였으며, 기존시설의 개·보수 등은 시설주가 부담하되 추가분은 조직위에서 지원하였다.

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총투자는 올림픽 종합시행계획 수립 당시 대회직접사업에 1조 1812억원, 여건조성사업에 1조 2651억원 등 총 2조 4463억원을 계상하였다. 올림픽이 종료된 후 총결산 결과 대회직접사업에 1조 1007억원, 여건조성사업에 1조 2655억원 등 총 2조 3662억원이 소요되어 종합시행계획보다 801억원이 적게 투자되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된 여건조성 사업에 총 1조 2655억원이 투자되어 종합시행계획보다 4억원이 추가되었으며, 대회직접사업비는 총

1

올림픽 관련사업 투자계획 대 실적(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계획					투자실적					증 감
	국 고	지방비	기금(조직위)	민 자	계	국 고	지방비	기금(조직위)	민 자	계	
행 사	55,792		231,149	376	287,317	63,080		(실적)174,734 (계획) 40,746 (소계)215,480	206	278,766	△ 8,551
시 설	48,531	102,309	216,874	302,346	670,060	36,334	114,248	(실적)179,990 (계획) 45,000 (소계)224,990	297,192	672,764	2,704
환 경	12,747	454,083		123,027	589,857	17,254	365,593		17,932	400,779	△ 189,078
보건·위생	55,559	16,408	3,940	6,117	82,024	65,882	19,691	2,565	10,487	98,625	16,601
교통·관광	246,818	101,172	24,904	18,147	391,041	286,846	134,982	4,669	5,776	432,273	41,232
통 신	420		47,647	77,674	125,741	3,133		30,487	92,267	125,887	146
개 발	3,657		21,510		25,167	3,378		36,865	114	40,357	15,190
문화·홍보	78,941	16,874	120,412	52,155	268,382	92,475	35,351	48,577	84,182	260,585	△ 7,797
국민의식	309	527	2,372	5,950	9,158	248	10,134		150	10,532	1,374
안 전						36,912	145	8,559		45,616	45,616
총 계	502,774	691,373	668,808	585,792	2,448,747	605,542	680,144	(실적)486,446 (계획) 85,746 (소계)572,192	508,306	2,366,184	△ 82,563

올림픽관련 직접투자사업 투자계획 대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계획					투자실적					증 감
	국 고	지방비	기금(조직위)	민 자	계	국 고	지방비	기금(조직위)	민 자	계	
행 사	828		231,149	376	232,353	6,525		(실적)174,734 (계획) 40,746 (소계)215,480	206	222,211	△ 10,142
시 설	48,531	102,309	216,874	302,346	670,060	36,334	114,248	(실적)179,990 (계획) 45,000 (소계)224,990	297,192	672,764	2,704
보건·위생	2,810		3,940		6,750	3,049		2,565		5,614	△ 1,136
교통·관광			24,904		24,904			4,669		4,669	△ 20,235
통 신			47,647	54,163	101,810			30,487	63,857	94,344	△ 7,466
개 발	3,482		21,510		24,992	2,979		36,865		39,844	14,852
문화·홍보			120,412		120,412			48,577		48,577	△ 71,835
안 전						4,116		8,559		12,675	12,675
총 계	55,651	102,309	666,436	356,885	1,181,281	53,003	114,248	(실적)486,446 (계획) 85,746 (소계)572,192	361,255	1,100,698	△ 80,583

(실적) : 1981. 11. 2－1989. 2. 28 결산　(계획) : 1989. 3. 1－1989. 10. 2 지출추정액

올림픽관련 여건조성사업 투자계획 대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자계획				투자실적				증 감
	국 고	지방비	민 자	계	국 고	지방비	민 자	계	
행 사	54,964			54,964	56,555			56,555	1,591
환 경	12,747	454,083	123,027	589,857	17,254	365,593	17,932	400,779	△ 189,078
보건·위생	52,749	16,408	6,117	75,274	62,833	19,691	10,487	93,011	17,737
교통·관광	246,818	101,172	18,147	366,137	286,846	134,982	5,776	427,604	61,467
통 신	420		23,511	23,931	3,133		28,410	31,543	7,612
개 발	175			175	399		114	513	338
문화·홍보	78,941	16,874	52,155	147,970	92,475	35,351	84,182	212,008	64,038
국민의식	309	527	5,950	6,786	248	10,134	150	10,532	3,746
안 전					32,796	145		32,941	32,941
총 계	447,123	589,064	228,907	1,265,094	552,539	565,896	147,051	1,265,486	392

2

1. 박세직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올림픽 성금을 보내준 박병헌 재일동포 거류민단 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2. 서울종합운동장의 올림픽주경기장 건설 마무리 공정(1983). 올림픽주경기장은 1984년 9월 29일 준공되었다.

제11장 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1조 1007억원으로 이를 세분하면 대회운영비에 344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시설투자 등 직접투자비에 7564억원이 소요되었다.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에서는 종합시행계획 수립시 6666억원을 순수대회직접사업비로 계상하였으나 소요물자의 적정화, 자원봉사인력의 최대 활용 등으로 5722억원이 지출되어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건조성사업에 투자된 1조 2655억원은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업들로서 올림픽을 계기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을 각 기관별로 시행시기를 앞당겨 추진한 것이며, 1982년부터 1984년까지 2170억원, 1985년 2620억원, 1986년 2626억원, 1987년 2727억원, 1988년 2512억원 등 국민경제에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투자액을 연도별로 균형 배분하였다.

올림픽 총 수지실적 및 예상(올림픽조직위)

(1981－1989. 10)　　(단위 : 억원)

수입				지출			
항 목	실 적 (81－89.2)	예 상 (89.3－10)	계	항 목	실 적 (81－89.2)	예 상 (89.3－10)	계
방 영 권	2,246	1	2,247	경 기	259	14	273
휘 장	741	5	746	시 설	1,800	568	2,368
주 화	1,327	22	1,349	기 술	305	7	312
복 권	1,185	2	1,187	의 무	26		26
광 고	235	32	267	수 송	47		47
입 장 권	275		275	선수촌·	309	1	310
입 촌 비	139		139	기 자 촌			
우 표	28		28	홍 보	228	6	234
이 자 등	315	113	428	의 전	55		55
계	6,491	175	6,666	문화식전	324	2	326
(기부금)				국제협력	57	20	77
출 연 금	46		46	수익사업	369	11	380
조 각	90		90	기관운영	644	76	720
성 금	574		574	인력·물자	105	3	108
아 파 트	1,315		1,315	기획·안전	336	150	486
특 정 후 원 금	14		14				
이 자	127		127				
아 시 아 전 입	251		251				
계	2,417		2,417				
합 계	8,908	175	9,083	합 계	4,864	858	5,722

※ 참고

〈억원 : (　)백만불 상당〉

잉여금	금 액	내 역
순잉여금	944 ($141)	○ 사업수입 6,666($995)－총지출 5,722($854)
총잉여금	3,361 ($502)	○ 총수입 9,083($1,356)－총지출 5,722($854)
		○ 순잉여금 944($141)＋총기부금 2,417($361)

3

3. 올림픽 이후 원화절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신장과 한국 상품의 신뢰도를 높였다. 사진은 반도체 칩 생산라인.

4. 수출한국의 상징인 부산 컨테이너 야적장.

2. 올림픽 이후 경제동향과 전망

2.1. 올림픽 관련사업과 한국경제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일부 국민들은 일본·캐나다 등 과거의 올림픽 개최국에서 나타났던 올림픽 이후의 경기침체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올림픽관련 투자가 1982년부터 1988년까지 분사 투자되었고, 대회 자체도 흑자로 운영됨으로써 이와 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게 되었다.

올림픽관련 투자액 2조 3662억원은 GNP 대비 0.5%, 고정투자 대비 1.4%로서 1964년 도쿄올림픽대회의 올림픽관련 투자규모가 GNP 대비 3.4%, 그 이전의 준비기간중에도 1% 수준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면 경기과열이나 경기후퇴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림픽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수지가 흑자였기 때문에 과거 올림픽 적자개최국이 경험했던 것처럼 올림픽 이후 적자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정적자에 따른 공공투자사업의 후유증도 없었다.

올림픽관련 투자사업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경기장시설과 대회여건 조성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규모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간접시설 투자는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더라도 산업발전 및 국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과잉 시설투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즉 국제화의 추이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국제공항의 확장과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도로의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한강종합개발사업과 도시환경개선 사업, 하수처리 및 수질관리시설, 공해방지시설 등은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선수·임원을 위하여 건설된 패밀리 아파트·선수촌 아파트도 대회 후 민간주택용으로 전환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전국적인 위생접객업소와 공중위생시설의 개선, 불량주택 재개발 등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중심으로 투자되었다.

산업측면에서도 전자교환시설·TV중계망 등 통신시설의 확충은 앞으로 고도산업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겠다.

사실 한국경제의 규모와 능력은 이미 올림픽 정도의 행사를 큰 부담없이 치러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올림픽 이후의 경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았던 것은 이러한 경제력을 과소평가한 데 따른 기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올림픽 과잉투자로 인한 특수경기가 끝나면 최소한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든가 물가가 오르고 부동산가격도 덩달아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올림픽 이후 후유증을 경험했던 멕시코와 일본경제의 경우를 구체적인 실례로 거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견해는 한국과 멕시코·일본 두 나라가 대회를 전후하여 처해 있던 경제상황의 커다란 차이를 간과한 것이었다.

우선 멕시코의 경우 올림픽의 후유증으로 경제파탄을 초래한 이유가 경제능력을 크게 벗어난 허장성세

올림픽관련 투자액

구 분	1982-1986	1987	1988	계
올림픽관련 투자액(억원)	11,558	5,317	6,787	23,662
고정투자 대비(%)	1.1	1.7	2.0	1.6
국민총생산대비(%)	0.3	0.5	0.6	0.5

4

제11장 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때문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이를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올림픽이 경제도약의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후유증이 비교적 컸던 이유는 막대한 투자규모 때문이었다. 당시 일본은 올림픽을 계기로 경제발전의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결과 4년의 올림픽 준비기간중 관련 투자규모가 GNP의 1%, 총투자의 3.1%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것이 올림픽 이후 투자 및 소비수요 감축에 따른 경기후퇴를 가져왔던 요인이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981년 9월 독일연방공화국의 바덴바덴에서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7년 동안의 올림픽 준비기간중 올림픽대회와 관련하여 2조 3662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이것은 동기간중 GNP의 0.5%, 총투자의 1.4%에 불과한 정도였다. 왜냐하면 한국은 지난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은 그때그때 확충해 왔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올림픽관련 투자규모가 한국경제력에 비하여 크지 않았으므로 올림픽 이후의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2.2. 올림픽 이후의 경제동향과 전망

한국경제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경기가 호조세로 지속되고 있어 올림픽 이후의 경제에 대한 우려는 거의 불식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원화절상과 노사분규·임금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출의 증가세가 지속됨으로써 경상수지가 14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88년의 경제성장률도 12.1%로 3년간 12%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1500억달러를 상회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러나 물가 측면에서 도매물가가 2.3%로 안정된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7.2%로 다소 불안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림픽 이후 소비패턴의 고급화, 소득보상적인 욕구의 증대, 무역흑자로 인한 통화증가, 부동산투기 조진 등 물가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9년의 한국경제는 안으로 민주화추세에 부응한 부문간·계층간 불균형 시정의 욕구와 밖으로 보호무역주의·시장개방압력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다소 예상되지만, 8%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수준 향상으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지역개발사업 및 기업의 생산성 투자가 활발하여 내수는 1988년의 신장세로 지속될 전망이며, 선진국의 성장은 다소 둔화될 것이나, 올림픽에 따른 한국상품의 신임도 제고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 등으로 수출 또한 계속 신장될 것을 예상된다.

나아가서, 올림픽은 새로운 시장개척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의 국제화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국상품에 대한 국제신임도를 크게 높이는 등 한국의 경제에 계량화할 수 없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경우 올림픽이 경제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올림픽 이후 한국경제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선 1989년의 경제전망을 개관해 보면, 수출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이나, 내수가 안정적으로 증대하여 전체적으로 1988년의 12%에 이어 1989년에도 7% 내지 8%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영향이 큰 선진국경제가 감속성장을 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이 가속화되어 수출증가가 다소 낮아지겠지만, 반면에 주택건설 확대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 투자가 활발해져 내수부문의 성장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여기에서 연 7%내지 8%의 경제성장은 지난 수년간의 높은 성장에 비하면 다소 낮은 느낌이 드나 늘어나는 인력을 고용시키고 경제활력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한 적정속도의 성장수준이라 하겠다. 더욱이 지난 1986년 이후 12%를 상회하는 과속성장이 예기치 않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호조에 따른 일시적인 경기과열현상으로 물가불안·통상마찰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8%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제반능력으로 보아 오히려 바람직한 성장수준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한국경제를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대내적으로는 올림픽 관련사업(2조 3662억원)에 의한 투자로 약 1조 9000억원의 소득이 창출되었고, 34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림픽 TV방영권 수입, 여행 수입 등으로 약 3억달러의 외화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준비와 개최과정에서 국내업체의 광범위한 참여로 관련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켰고 한국상품에 대한 광고효과를 통하여 수출신장의 계기가 되었다. 나아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민족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상품 수출의 증대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적·기술적 교류가 상승 증대하였다. 더욱이 특기할 점은 올림픽에 공산권 국가들의 대거 참여로 대북방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헝가리와는 상주대표부의 설치를 합의하였고, 중국과는 무역사무소의 설치를 합의한 바 있으며, 소련·불가리아·폴란드와도 무역사무소의 설치를 교섭중에 있다. 또한 기타합작투자·기술협력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한국경제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한국경제가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과제도 많다. 즉 물가안정과 부동산투기의 근절, 소득분배의 형평과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모든 국민이 자제·합심하여 해결해 나감으로써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3.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친영향

3.1. 대내적 측면

□ 소득 및 고용의 증대

올림픽 관련사업(2조 3662억원)에 의한 투자로 약 1조 9000억원의 소득이 창출되었고, 34만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분야에서 소득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서비스업에서의 고용증대 효과 또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올림픽 TV방영권 수입, 여행수입 등으로 약 3억달러의 국제수지 흑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림픽을 사고없이 마치게 됨으로써 한국의 안전에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으며, 올림픽기간중 한국의 역사·문화가 전 세계에 홍보됨으로써 앞으로 관광객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산업의 기술개발과 수출신장의 계기 마련

올림픽사업은 그 자체의 직접적인 소득 및 고용증대 효과외에도 관광·전자·통신·섬유·스포츠용품 등 여러

산업부문에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수출시장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자산업분야는 올림픽대회 개최 및 운영과 관련된 전산화작업과 대회기간중에 사용되는 각종 전자기계 등에 국내산업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통신 · 전자시스템분야의 기술축적과 기술수준의 대외신임도를 높여, 한국상품의 품질향상과 해외시장 광고효과를 동시에 가져옴으로써 수출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공예산업은 소규모 자본의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지만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통공예 생산품에 대한 투자를 적극 지원하여 수출상품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한국의 전통공예품에 대한 수요를 유발시킴으로써 공예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교통망 확충과 관광자원 개발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관광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였다.
스포츠 · 레저산업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올림픽을 계기로 신제품의 개발 및 제품의 고급화에 주력하여 앞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국민화합과 의식구조의 선진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민족적 자부심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한번 더 확인하게 되어, 새로운 대내외 도전을 극복하고 선진경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었다. 또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낸 화합정신은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여 지역간 · 소득계층간 갈등과 불균형의 시정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식이 국제화로 이행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개방화 · 국제화를 추진하는 기반을 튼튼히 하였고, 이를 토대로 무역 · 외환 자본거래에서 한국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자유화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올림픽대회에 이어 개최된 장애자 올림픽대회를 많은 국민들의 장애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장애자도 정상인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으로써 이들의 고용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상인들 또한 장애자의 시련극복 의지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3.2. 대외적 측면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었다.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써 한국상품의 수출증대 및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적·기술적 교류가 상승 증대하였고,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신용도 평가지수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토대로 선진국과는 대등한 위치에서, 개발도상국과는 정치적 · 경제적 동반관계에서 국제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감은 물론, 비동맹국 및 공산권과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올림픽에 참여한 많은 공산국가들이 한국경제에 대하여 새롭게 평가하고 한국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한국의 대북방 경제협력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즉 중국 ·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들의 경제인 교류는 물론 무역규모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무역 교류 중심에서 대규모 합작투자사업 등 프로젝트 중심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헝가리 · 유고슬라비아와는 무역사무소를 이미 개설하였고, 소련 · 불가리아 · 폴란드 및 중국(산동성)과는 1989년도에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1988년 9월에는 중국산동성과 직항로 개설을 합의하였고, 소련과도 개설을 추진중에 있다. 중국 · 소련 및 동유럽권 7개국과 은행간 환거래협정을 체결하여 직교역의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제협력 및 교류가 바탕이 되어 1989년 2월에는 헝가리와 공식 외교관계의 수립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림픽기간중 한국경제의 과잉홍보로 외국에서 능력 이상 요구해 오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분담이 크게 요구되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개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같이 대외지향적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능동적인 대외협력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상응토록 한국경제의 국제화 · 개방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산권을 포함하여 미수교국에 대한 진출도 성급한 기대외 지나친 의욕보다는 체계적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올림픽 관련사업 투자효과

구 분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금액(억원)	구성비(%)	고용인구(천명)	구성비(%)
농 림 어 업	1,080	5.9	24.9	7.4
제 조 업	3,817	20.7	53	15.8
사회간접자본 (건 설 업)	8,005 (6,623)	43.4 (35.9)	103.8 (93.1)	31 (27.8)
서 비 스 업 · 전 산 업	5,560	30	153.6	45.8
계	18,462	100	366	100

※ 서울올림픽 총투자비용(2조 3662억원) 기준이며 산업연관 분석에 의한 추계치로서 1983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음(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4. 평가

동서진영을 막론하고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여 사상 유례없는 성공올림픽을 치름으로써, 대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국력신장으로 국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국민화합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선진경제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직접 인식하게 하여 국제적 신임도를 제고하고, 대북방 경제협력 증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1990년대 초에는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